

‘무니만 中企’ 숙아내고 ‘맞춤형 지원’

■ ‘중기 경쟁력 강화 방안’ 내용과 의미

대기업 계열사 등 제외 순수 中企만 육성

조세지출 감소…정규직 고용확대 기회로

중소기업청이 28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한 것은 ‘무니만 중소기업’을 숙아내 지원이 절실했던 창업 초기기업에 정책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잘못된 중소기업 범위 설정으로 중견 규모의 기업들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회사를 분사하거나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는 경우 국내 자회사 11개와 외국에 법인 5개를 거느리며 941명의 정규 직원이 있지만 자본금이 78억원으로 중소기업 기준(자본금 80억원 이하)을 충족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300명을 넘지 않기 위해 일부 공장을 아웃소싱

을 주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 종업유에 상태에 있는 기업 164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보면 10곳 중 4곳이 중소기업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으며, 10곳 중 2곳 풀로 외주제작과 임시직 채용을 늘려보 경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해당 기업 규모를 산정할 때 상호 계열관계 있는 회사의 경우 관계회사 출자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출자지분 상당의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을 해당 기업의 것으로 보고, 50% 이상일 경우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

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간의 적자를 수용, 대기업의 손자회사들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계열사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의 우산 아래 남아 있는 바람에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천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출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확대와 조세지출 감소가 기대되며, 비정규직의 고용확대, 인위적 분사 등 중소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불합리한 경영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월 물가 6% 안넘을 것”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8월 소비자물가는 전체적으로 7월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 8월 소비자물가는 전망과 관련해 “7월 들어 20% 이상 하락한 국제유가가 국내가격에 반영되고 밀가루 가격하락도 생활품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5.9%로 1998년 11월 이후 9년 7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김 차관의 전망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고유가·국제금융시장 불안같은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는 다른 나라들도 공동적으로 겪는 현상”이라며 “당분간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 우리 경제는 회복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G전자 유럽 ‘IFA 2008’ 참가

LG전자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독일 베를린(Berlin)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08(Internationale Funk ausstellung)에 참가해 LCD TV, PDP TV, 블루레이, 헤드폰, 아트가전 등 첨단 라인업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한국 채무국 전략?

순대외 채권 ‘제로’ 상태… 단기 외채는 2,220억달러로 ‘껑충’

르렀으나 2000년 플러스로 전환했고 2005년 말에는 1천207억 달러까지 늘었다. 그러나 2006년 말 1천66억 달러, 작년 말 355억 달러로 감소한데 이어 6월 말에는 두자릿 수로 뚝 떨어졌다.

순대외 채권이 줄어든 이유는 대외 채권이 4천224억8천만 달러로 3월 말의 4천269억6천만 달러보다 44억8천만 달러 감소했는데 비해 대외 채무는 4천138억 달러에서 4천197억6천만 달러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순대외 채권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말에 680억8천만 달러에 이

말 현재 1천756억5천만 달러로 전분 기밀의 1천764억7천만 달러보다 8억 2천만 달러 줄었으나 장기외채는 2천 373억3천만 달러에서 2천441억1천만 달러로 67억8천만 달러 늘었다.

이에 따라 대외채무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2.6%에서 41.8%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유동외채(단기외채+잔여만기 1년내 장기채)는 2천223억2천만 달러로 3월 말의 2천161억3천만 달러보다 61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

/연합뉴스

“상호출자 금지 폐지 안한다”

백용호 공정위장, 사교육 등 5대 업종 모니터링 강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없애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상의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통신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대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일부 업종은 이미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증수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빠른 시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 발표한데 이어 품목별 가격차의 원인을 분석해 일부 품목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실을 적발했다”며 “연내에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해야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는 넓은 관점에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는 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증수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빠른 시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 발표한데 이어 품목별 가격차의 원인을 분석해 일부 품목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실을 적발했다”며 “연내에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해야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는 넓은 관점에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단체·퇴직 보험료 담합

보험사에 265억 과징금

24개 보험사와 농협이 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때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총 26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보험사들과 농협이 장기간에 걸쳐 보험시장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법인단체상해보험의 가격 담합에 105억9천300만 원, 퇴직보험의 가격 담합에 139억9천700만 원, 공무원단체보험이 입찰 합계에 19억5천6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교보·대한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는 2004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공동으로 만들어 냈다.

그동안 공동으로 단체상해보험과 퇴직보험의 가격 담합에 105억9천300만 원, 퇴직보험의 가격 담합에 139억9천700만 원, 공무원단체보험이 입찰 합계에 19억5천600만 원이다. /연합뉴스

국제보청기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이)
(062) 227-9940

충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SINCE 1982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5210 원 011-602-2522
(금우동 산본점, 대인동 산서점)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점

포기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포기 4~5

칸 정도에 접포가 여려번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 (02) 234-8210 원 011-609-0998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금수동 디오로 디자 231㎡(70평 5층 20억

동로 디자 230(70평 58억

동로 디자 208(63평 4층 18억

동로 디자 165(56평 4층 23억

동로 디자 132(40평 3층 10억

광주 구사정 디자 537(163평 4층 15억

광주 구사정 디자 537(163평 4층 1